

앙헬 라마의 『문자 도시』에 나타난 식민시기 지식인상 연구

이 성 훈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이성훈(2013), 앙헬 라마의 『문자 도시』에 나타난 식민시기 지식인상 연구.

초 록 이 글에서는 앙헬 라마(Ángel Rama)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지식인상을 식민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기로 한다. 라마는 문자 도시(Ciudad letrada)라는 개념을 통해, 지식인들이 식민 질서를 유지 강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 권력의 시녀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주인이었음으로 보여 주고 있다. 식민 사회의 작동을 이끌면서 권력 그룹을 적법화했던 사회적 기능은 독립이후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기본적으로 라마는 지식인들의 존재 근거 자체를 권력과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사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롤레나 아도르노(Rolena Adorno)가 『새로운 연대기와 좋은 정부 *Pimer nueva crónica y buen gobierno*』 분석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식민지 권력에 저항하는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문자 도시라는 식민지 지식인 사회가 반드시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즉, 라마의 『문자도시 *Ciudad letrada*』가 당대 문자도시를 지나치게 동질적으로 사유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고, 라마의 문자도시와 다른 또 다른 문자 도시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라마의 식민 도시와 지식인에 대한 이론화는 비평사적으로 갖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라마의 유보적인 언급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식민시기 지식인 상을 동질화하지 않고 보다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성사와 사회 운동에서 지식인들이 보여주는 실천적인 역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어 앙헬 라마, 문자 도시, 식민 시대, 지식인

* 이 연구는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 앙헬 라마의 『문자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 글은 이성훈(2001)을 참고하십시오. 이 글에서는 이성훈(2001)을 바탕으로 하여, 식민 시대 지식인상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과 이성훈(2001)은 『문자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에 있어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지식인상에 초점을 맞출 경우 차이가 있다. 즉 이전 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극복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I. 서론

양헬 라마의 『문자 도시』는 라틴아메리카 비평가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텍스트에 대한 관심은 그의 다른 텍스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며, 특히 미국 내 연구자들에 비해 라틴아메리카 비평가들의 관심이 약하다. 그러나 이 텍스트는 양헬 라마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출판되어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지식인을 ‘문자 도시’라는 상징으로 풀어낸 라틴아메리카 지식인 연구의 정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헬 라마의 문제의식은 크게 모더니티, 그리고 문학과 사회의 관계라는 두 가지 틀로 정리 된다(Ortiz 1993). 『루벤 다리오와 모데르니즘 *Ruben Darío y el modernismo*』(1970)에서 근대화라는 물질 토대의 변화를 문학이 어떻게 담아내는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 『라틴아메리카에서 서사적 통문화화 *Transculturación narrativa en América Latina*』(1982)에서는 일정한 변화를 보여준다. 즉, 앞 텍스트가 모데르니즘과 관련하여 주로 문학의 기교와 형식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는 반면, 『라틴아메리카에서 서사적 통문화화』는 라틴아메리카적인 요소가 어떻게 서구적인 요소들과 결합되고 있는지를 인류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초기의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에서 벗어나, 통문화화(transculturación)라는 개념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보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문맥에서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지적인 관심을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비평가들은 그의 통문화화 개념이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무시하고,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단선화하고 단일화하려는 엘리트 지식인들의 권력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라틴아메리카 문화 분석에서 제기되는 혼종성(mestizaje, híbridez) 개념에 대한 비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꼬르네호 뿔라르의 이종성(heterogeneidad) 개념에서 시작하여 하위주체 연구로 확장되었다.

양헬 라마의 『문자 도시』에 등장하는 지식인들은 통문화화를 주도하는 작가

중심의 지식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즉, 『문자 도시』에서 기존의 앙헬 라마이 가지고 있던 지식인상과는 다소 차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의 이런 변화가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 구체화되지는 못했지만, 이후 라틴아메리카 비평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변화를 일정부분 선취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통문화화라는 개념을 통해 라마가 유럽 문화와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결합에서 낙관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면, 이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낙관적인 입장과는 다소 다른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앙헬 라마가 통문화화 개념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 『문자 도시』에서 등장하는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은 지배 권력의 기능인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일련의 라틴아메리카 사회 변화 운동이 위기에 봉착했던 것, 미국 내 쿠바계 이주자들의 영향을 받아 대학이라는 제도가 그에게 보여주었던 배타적인 태도 등이 그 원인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식인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적 영역에 등장하게 된, 다양한 종류의 ‘탈’ 전통주의적인 비평 흐름에 의해서도 일정부분 이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앙헬 라마의 『문자 도시』에 나타나는 지식인상을 식민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기로 한다. 라틴아메리카 지식인은 식민 시기부터 권력과의 관계에서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그의 판단에서 보여주듯이, 이 시기에 대한 분석은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특징에 대한 라마의 관점을 잘 드러낼 것이다. 또한 앙헬 라마가 갖고 있는 지식인상에 대한 비판적인 논거들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식민시기 지식인과 도시의 모습을 보다 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앙헬 라마가 도시라는 일상 공간을 통해 식민시기 권력이 어떻게 안착하는지를 담론화하고, 또 문자 도시라는 상징을 통해 권력과 지식인 사이의 관계를 담론화하여 라틴아메리카 식민시기와 지식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보게 될 최근의 논의들은 라마의 이러한 이론적인 태도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지식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이러한 비판을 통해 식민 시기의 지식인상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한다.

II.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철학적 기반

양행 라마에게 있어 라틴아메리카 도시는 “스페인 절대 왕권에서 그 절정에 달했고 총체적인 사회생활에 침투한 바로크 문화라는 일반적인 틀이 구체적으로 적용된”(Rama 1984, 14)¹⁾ 사례들이었다. 식민 시기부터 현실과 유리되어 건설되기 시작한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은 교회, 관청, 경찰이나 군 등 권력 기관들을 수반한 중앙광장의 배치를 통해 매우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심을 둘러싼 공간의 체계적인 배치가, 왕권을 중심으로 한 당시 사회 질서의 공간적 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은 “유기적으로”(1) 성장한 유럽의 도시들과 달리, 식민 지배의 수월성을 위해 도상에서 그려진 도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도시들이 봉건적인 생산관계가 해체되면서 축적된 잉여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시민계급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해 간 데 반해,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은 이성적이고 기획적인 성격의 결과이다. 이렇듯 일상 속에서 거주민들의 자연적인 필요에 의해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식민지배의 필요에 의해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이 건설된 이면에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당대의 철학적 기반이 있을 것이다.

이들의(정복자들의) 대서양 횡단은 구대륙에서 새롭다고 가정되는 대륙으로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시간의 벽을 가로질러, 아직 중세적 포교정신이 가득 찬 팽창적이고 전세계적인 자본주의로 진입한 것이었다. 16세기에 시작된 세계문화의 이러한 양상은, 비록 르네상스 정신에 의해 설계되었지만 오직 유럽 국가들의 절대군주제라는 틀 안에서만 완벽해질 수 있었다. 엄격하게 모든 권력을 궁정에 집중시키면서 교회는 절대왕권의 군사력에 굴복했고, 이런 총체적 권력이 사회를 위계적으로 훈육시켰다. 도시는 이러한 문화적 형상을 현실에서 구현할 가장 적절한 지점이었고, *바로크 도시*(*la ciudad*

1) 앞으로 양행라마의 『문자 도시』가 인용될 경우 쪽수만 표기한다.

barroca)라는 항구성을 지닌 도시모형을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기획은 유럽에 있는 도시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역사적 과거의 구체적인 축적은 물질적인 지속성으로 인해 어떠한 상상력의 자유로운 발현도 막았고, 따라서 당시 관념론적 이상주의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광활한 신대륙은 이러한 이상주의를 실현할 유일한 기회의 장소였다.(2)

이렇게 스페인 절대 왕정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도시를 건설해 가는 과정의 이면에는, 신플라톤주의뿐만 아니라 격자형의 이상적인 도시를 창안한 그리스 철학자 히포다모스(Hippodamos)의 개념, 특히 “이성의 작용은 인간의 모든 행동에 척도와 질서를 부과할 수 있다는 믿음”(3)이 존재했다고 라마는 지적한다. 이러한 이성 중심의 사유 체계는 푸코가 말하는 고전주의 에피스테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는다. 앙헬 라마가 지적하듯이, 유사성에 기반 한 르네상스적인 에피스테메에서 말과 사물의 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고전주의 에피스테메가 등장했는데, 이 고전주의 에피스테메의 시작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바로크 시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크시대(프랑스인들에게는 고전시기인)라고 부르는 16-17세기에 아메리카로 유입된 이러한 사상은 미셸 푸코가 통찰력 있게 진단한 바 있는 서양문화의 결정적 시기와 일치한다. 즉 말이 사물로부터 분리되고, *매개(coyuntura)*을 통한 단어 간의 삼단 결합이 기호 질서의 독립성을 이론화한 『포르-루아얄 논리학』의 이분법에 의해 대체된 시기였다. 도시와 그에 기반을 둔 사회 그리고 이를 설명할 지식인들은, 기호가 세계의 형상이기를 거부하고, 유사성 혹은 인접성이라는 비밀스러우면서도 견고한 결합으로 자신이 표현하고 있는 대상과 묶여 있던 것에서 벗어나, “인식의 내부에서 의미화”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호가 자신의 안정성 혹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바로 그 시기에 만들어지고 발전한다.(3-4)

이처럼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은 말과 사물의 관계가 역전된 현실, 즉 말들이 사물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자신의 질서를 관철하려는 시기에 등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 기호와 사물의 관계가 역전되어 기호 혹은 말이 더 이상 외적 리얼리티에 의존하거나 그것의 모방으로 존재하지 않고, 자신들의 내적인 원리

를 통해 존재하고 자신들의 질서를 사물에 투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호와 사물이 분리되는 16, 17세기, 이성에 기반 한 기호들의 체계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이상적인’ 도시들이 출현하게 된다.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은 기호들의 질서라는 관념적 혹은 이성적인 도시 기획을 통해 건설되는 것이다. 도시 기획은 “체계적 이성(razón ordenadora)”(4)에 통제되었는데, 체계적 이성은 지리적 배치 체계에 위계적인 사회 질서를 투사함으로써 그 안에 당대 지배 계급의 논리가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마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도시를 기획하고 건설하기 위해서는 절대 왕정의 정치 체제가 보여주는 최대한의 권력 집중이 필요했다. 왕권과 신권의 결합을 통해 절대 왕정이 기능하고 있지만, 정치권력은 현실을 지배하기 위해 종교 권력과 종교적 상징체계를 넘어서는 현실 세계의 새로운 권력 기제를 끊임 없이 요구하게 된다. 즉, 권력 자체의 속성상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데올로기화 과정”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대 왕정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질서/명령(orden)”이라는 것이다.

이 모든 체계의 핵심어는 야누스 신처럼 이중적 의미를 지닌 질서/명령(orden)으로, 제도화된 삼대 권력구조(교회, 군대, 행정)이 적극적으로 발전시킨 용어이며, 당시의 어떤 분류체계(자연사, 건축사, 기하학사)에서도 다음과 같은 용어의 의미에 따라 사용되어야 했다. “사물을 제 위치에 배치하기. 사물들 사이의 조화롭고 보기 좋은 배치. 사물을 만들어내는데 지켜야할 규칙 혹은 방식.”(4)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도시 기획에서 보이는 바로크적 도시 건축은 이러한 절대 왕정의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현실에 구체적으로 각인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절대왕권이 도구화한, 바로크적 지식(saber barroco)이 체계적으로 작동한 최초의 장소는 아메리카”였다는 것이다. 또한 바로크적 지식은 “압축, 이성화, 체계화라는 절대 왕정의 엄격한 원칙에 입각하여 라틴아메리카의 특이성, 상상력, 지역적 장치”들을 통제했다. 이렇듯 이성적 기호의 질서와 절대왕권의 결합은 라틴아메리카의 객관적 현실을 무시하고, 기호의 자기

정당성과 절대 왕권의 특권적 위치를 확보하려는 과정이었던 것이다(13).

결국, 이렇게 기획된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은 이중의 삶을 살아갈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물리적 영역과 기호의 질서 영역에서 도시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게 되는 건설, 파괴,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와 반대로 기호들의 질서 영역에서는 불변성을 보여주게 된다. 즉, 라틴아메리카 도시에서 우리는 도시 기획을 관통하고, 이 도시를 통제하는 불변의 권력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라틴아메리카 도시는 원래 태생과는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는 물리적 질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과 집단을 만족시킬 만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대와 상황에 따라 건축과 파괴, 복구, 개선이라는 반복과정을 거쳐야 했다. 다른 하나는 상징적 층위에서 작동하는 기호의 질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호는 재현의 시점에 관계없이 물리적 세계의 사건과는 무관한 불변성을 이용한다. 역사적 시간 속에서만 존재 가능한 거리, 집, 광장이라는 현실이 존재하기 이전에,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은 (중략) 지성의 산물로서 도시를 이론화하는 규범 및 도시 건설과 관련된 기록, 도시를 이상적으로 디자인하는 도면 속에서 이미 완벽하게 구상되어 있었다.(11)

물론 라마도 간략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들이 아무런 토대 없이 “완전한 진공 공간에서 작동하지는 않았을 것”(16)이다. 새롭게 건설된 도시들은 적어도 “농경지, 시장, 특히 노동력이라는 이미 존재하는 원주민의 사회망을 이용했을 것”이다. 즉, 갑작스러운 자본주의의 유입이 당시 존재하던 원주민들의 자체적인 시장 경제를 파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원주민들의 이 “시장 경제는 몇 세기 동안 점점 약화되기는 하지만 지속되었을 것”(16)이다. 그러나 유보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앙헬 라마의 담론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은 ‘식민적 꿈’을 실현하는 ‘질서라는 이성’에 의해 기획되고 실현된 공간으로 지나치게 일반화되고 있다. 우리가 말과 사물의 거리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처럼, 이상적 도시와 실제 도시는 실제로 늘 끊임없이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말은 실제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하려고 하고, 실제 자체 역시 이러한 말의 질서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말의 질서, 다시 말해 체계적 이성에 의해 규범화된 도시가 당면한 문제는, 그 질서의 영속성이라는 이상적 층위가 아니라 어떻게 이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였다. 여기로부터 규범화된 도시 내에 존재하는, 이 도시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맡은 문자 도시(*la ciudad letrada*)라고 하는 지식인 집단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다.

III. 라틴아메리카 '문자 도시'와 권력

라틴아메리카 지식인 집단에 대한 라마의 관심은 마리벨 오르티스가 지적한 바처럼 지식인들이 헤게모니 집단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Ortiz 1993, 224-225) 그러나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이러한 그의 지식인상은 시기적으로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라틴아메리카에서 서사적 통문화화』에서 작가로 대표되는 지식인들이 하위문화와 지배 문화를 '종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지만, 『문자 도시』에서는 지식인들에 대해 권력의 도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라마에 의하면, 제국적인 대도시가 특징적이었던 식민 시기부터 독립적인 개별국가가 형성되고 공고화되던 시기인 독립 시기까지 지식인은 헤게모니를 달성하려 하는 권력 계층의 도구였다. 즉, 식민 질서가 이식되고 식민 지배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지식인들이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간주한 것이다. 식민화와 관련되어 지식인 계층의 필요성을 양행 라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절대 왕권의 규범화된 체계를 발전시키고, 위계화와 권력 집중을 용이하게 하며, 문명화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절대 권력의 대리인들이었던 식민지 도시들은 이러한 책임을 위탁할 전문화된 사회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그 전문가 집단은 자신들이 사제 계급과도 견줄만한 높은 행정 관료직을 수행한다는 의식을 갖게 된 것은 불가피했다. 추상적인 절대성이 아닌, 기호의 세계에서 질서 있게 정돈할 이차적인 절대성은 스페인 절대왕정을 위해 기능하는 이들 집단의 몫이었다.(23)

문자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문자 도시의 성격상 식민 초기에는 성직자들과

지식인 집단이 구분되지 않았고, 종교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은 오랜 동안 병존해 왔다. 지식인 집단과 성직자 집단은, 18세기 세속화가 진행되면서 민간 지식인들이 종교인들이 담당했던 영역들을 대체하면서 분리되기 시작한다. 역사적으로 보아 두 집단이 병존하기 시작했던 것은 “1572년 누에바 에스파냐에 예수회 신부들이 들어왔을 때”이고, 그 끝은 “1767년 까를로스 3세 의해 그들이 아메리카에서 쫓겨 날 때”(23)이다. 식민지에서 교육 사업에 치중한 예수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식민지 지식인들이 육성되는 과정은 “식민지 내에서 행정 및 성직 기구가 형성되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식인들이 권력 주위에서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고, 스페인을 위해 “상징적인 언어를 관리”(24)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정복자들이 테노치티틀란(Tenochtitlan)을 재건축하면서 부터 시작한 라틴아메리카 도시 건설은 정복자들의 질서를 구현하는 “체계화된 도시”를 만들려는 이상적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중심에서 제국의 이익을 관리하고,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대한 이데올로기화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이 스페인 제국을 위해 기호들의 세계를 통제하면서, 제국의 대리인들이 식민지에서 행사하는 권력의 유효성을 기록하고 유지시켜준 것이다. 그에 따르면, 도시와 문자는 늘 식민 권력을 적법화했는데, 그 중심에 문자 도시가 있다는 것이다.

도시 전체의 중심에는 (중략)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고 집행하는 층위를 구성하는 문자 도시가 있었다. 종교인, 관리, 교육자, 전문가, 작가, 그리고 다양한 지적 종사자들, 즉 펜을 다루는 이들로 이뤄진 일군의 집단은 권력의 작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이 게오르크 프리드리히(Georg Friederic)가 관리들과 관료들로 구성된 모델 국가로 간주해 왔던 것을 구성했다.(25)

일종의 관료 역할을 하는 이들 지식인들이 식민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통치세력이었다. 이들은 문자의 자족성과 독립성을 옹호하고, 이를 통해 현실이 기호들로부터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영향력 안에서 관리했다. 즉, 기호들의 질서라는 식민 권력의 이상적 질서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

지식인, 곧 문자 도시의 역할이었다. “기호들을 우선시 하는 질서”(24) 속에서 작동하는 문자 도시는, 식민 지배의 규칙이 정착되는 동안 식민지에 부가될 권력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식인들은 원주민들의 구어 전통을 배제하고 문자 문화를 우선시하는 식민적 문화유산을 남겼으며, 권력에 대항하는 어떤 대안 권력에 대해서도 억압적 권력을 행사했다.

단일한 질서에 대한 욕구는 권력을 유지하고 이 권력이 보장하는 사회 경제적, 문화적 구조를 보존하기 위해 작동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권력에 대항하는 어떠한 담론체계라도 다른 질서에 대한 욕구로 전이시키면서 억압한다.(9)

문자 도시의 중요성은 펜의 권력을 준 사람들이 권력 집단의 명령 집행자가 되어, 도시와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과정 동안 반복되어 온 권력 집단과 지식인들의 ‘우호적인’ 관계가, 이때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지식인들이 문자 도시의 구성원이 되어, 왕권의 실현에 복무하면서 스페인 제국 통치 세력과 식민지의 사회 그룹들 간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늘 “왕이 보낸 고위 관리들 주위에 머물며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위치해 있었고”(26), 자신들이 “권력의 시녀이기도 했지만 권력의 주인이기”(31)도 했다.

라마는 “광범위한 식민 행정의 요구”와 “원주민 인구의 복음화”에 대한 요구로 인해 많은 수의 지식인들이 필요했고(27) 그 결과 문자 도시가 강화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문자 도시의 존재 근거는 권력과의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민 시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식인들이 이러한 권력과 차별되는 대안적 견해들을 생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점은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는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존재론적’인 특징인 것이다. 홀리오 라모스가 지적한 바처럼 지식인을 규정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의 부재는, 결국 지식인들이 대안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낼 수 없게 되는 요인이 된다. 이 점이 바

로 앙헬 라마가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차별성보다는 연속적인 선상에서 지식인의 성격을 규정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지식인들은 “권력의 시녀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주인”이기도 했다는 라마의 언급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식민 시대 지식인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IV. ‘다른 문자 도시’의 등장

앙헬 라마의 이러한 지식인상에 대해서, 『문자 도시』가 라틴아메리카 역사의 다양한 순간들에 존재하는 지식인상에 대해 지나치게 동질화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즉 라틴아메리카에서 지적 실천들은 역사적 시기에 따라 차별적이었고, 식민 시기에도 문자도시로 일반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지적인 실천들이 있었다(Florencia 2006, 195). 즉,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은 앙헬 라마가 파악했던 것처럼 단일하지 않고, 또 다양한 공간 속에서 대항적인 담론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앙헬 라마가 말하는 ‘문자 도시’ 이외에 ‘또 다른 문자 도시’가 존재했다.²⁾ 이런 맥락에서 앙헬 라마의 『문자 도시』는 지식인의 변화를 부정하고 지식인의 존재를 탈역사화하고 있으며, 지식인 집단을 동질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자 도시라고 하는 권력의 성체 밖에서 활동했던 지식인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들의 활동에 주목하는 것이야 말로 식민시기 지식인상을 온전하게 파악하는 길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식민지 담론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롤레나 아도르노(Rolena Adorno)의 견해를 따라, 또 다른 문자 도시의 존재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아도르노는 “문자 도시와 문자 도시에 의해 배제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면, 적대적인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대립적인 세력들 내에 내재한 차

2) 문자 도시를 동질적으로 바라보는 앙헬 라마의 입장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즉 지식인 계층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아니라, 1980년대 등장한 하위주체 연구나, 페미니즘, 백인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사후 출판됨으로써, 이런 이론적인 고민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들”이 무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987, 4). 특정 이데올로기가 문자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앙헬 라마의 입장에 대해, 그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인다. 즉 문자 도시 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지닌 또 다른 입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의 존재와, 이 목소리들 사이의 경쟁을 우리는 라스 까사스 논쟁 같은 사례를 통해 잘 볼 수 있다. 아도르노가 지적하고 있듯이, 문자 도시 내에 제한적이지만 이데올로기적인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쟁의 최대 표현은 책의 출판과 금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잘 드러난다(Adorno 1987, 4). 이처럼 문자 도시 내의 대립과 경쟁은 식민 시대의 라틴아 메리카 문자 도시를 단일한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들 다른 목소리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토대가 되는 문자의 중요성을 잘 인식한 그룹이었다. 따라서 문자 도시의 자장 안에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권력의 원천이자 매개인 문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제국의 언어인 스페인어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복자의 언어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청원문과 항의문을 쓰면서, 지배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문자 도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자 도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도르노가 말하는 문자 도시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공식적인 문자도시와 다른 또 다른 문자 도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615년 와망 포마(Waman Puma)라는 원주민 성과 데 아얄라(de Ayala)라는 스페인 성을 지닌 원주민이 펠리페 3세에게 쓴 1,200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연대기와 좋은 정부 *Pimer nueva crónica y buen gobierno*』라는 텍스트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자. 이 제목에서 구아만/와망 포마가 목표로 하고 있는 두 가지 글쓰기 목표가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지금까지 “스페인 정복자들과 그들의 시각에서 쓰인 정복사와 식민 역사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의지와 함께, 식민지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이를 넘어서려는 의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개혁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송상기, 161-162). 송상기는 이 텍스트가 매우 이질적이고 독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 텍스트는 또 다른 문자도시라는 흐름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할 것이다.

상당수의 중남미 식민지 연대기가 스페인 국왕을 비롯한 상부 기관의 명령에 대한 보고나 개인적 출세를 위한 야심이나 자신에게 지워진 책임이나 오해에 대한 정당화나 변론을 일삼고 있다는 점에서 정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안데스 원주민 노인의 원고는 매우 이질적이고 독자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다.(송상기 2008, 162)

그의 성이 구아만 포마(Guamán Poma)인지 와망 포마 인지를 둘러싼 대립에서 보이듯이, 그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가 식민 질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식민 질서를 전복하기 보다는 식민 질서의 개혁을 꿈꾸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그 역시 문자 도시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자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를 구아만 포마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점은 구아만 포마가 안데스 역사를 피식민자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런 그의 입장이 국왕에게 새로운 정치 체제를 제안하기 위해 원고를 보내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부왕체제가 아닌 연방 체제를 주장하고 식민 관리들의 폭정과 폭력적인 복음화를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민 질서의 전복이 아니라, 식민 질서의 유지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Adorno 1987, 10).

세리들과 부왕청의 관리들, 재무관 그리고 판사들은 세금과 공물을 거둔다는 명목으로 인디오들로부터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훔쳐가니 잘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지방군수들은 인디오 남성의 치명적인 적이요, 사제들은 원주민 여성들의 불구의 원수들이고 대토지를 소유한 지역 유지는 이보다 더합니다. 모든 스페인인들은 왕국의 불쌍한 원주민들에게 적대적이나 잘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중략) 스페인에서 온 지방군수들과 사제들은 이 왕국의 불쌍한 인디오 남성들과 여성들을 학대합니다. 그들은 인디오들의 땅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주님과 폐하의 정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원본 텍스트 스캔본 935; 송상기 2008, 177-178에서 재인용)

식민 지배의 작동 기제인 문자 도시는 문화적 다양성을 식민 질서가 부가한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자 도시의 타자들은 부정적인 속성을 지닌 스테레오 타입으로 등장한다. 아도르노는 이 부정성 중에서 “문자의 결여 혹은 토속적인 신앙을 나타내는 상징적 언어들의 존재”에 주목하고 있다(Adorno 1987, 21-22). 타자들이 문자를 갖지 못하다는 데서 문자 도시의 우월성이 나타나고, 기호들의 질서 유지라는 역할을 문자 도시가 맡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살펴 본 것처럼 기호들의 질서 유지는 실제로 식민 지배의 공고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아만 포마는 안데스 민중들에게 문자를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식민주의자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문자를 습득하여 법률에 의존하는 것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자를 습득하지 않고는 문자 도시 밖의 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케추아어를 문어로 만들기 위한 선교사들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들의 언어를 공식 언어로 만들기 위한 투쟁은 결국, 언어를 둘러싼 문제가 식민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Ibíd., 22-23).

라마에게 있어 문자 도시는 불변하고 탈역사적이지만, 구아만 포마에게서 드러나듯이 문자 도시는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어떤 것이다. 문자 도시에서 주변화된 목소리들의 등장은 기호들의 유동성을 보여주고, 문자를 특정 그룹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자 도시는 완고한 성체에 둘러싸인 고정되고 유일한 공간이 아니다. 문자 도시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닫혀있거나 넘을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새롭게 생성되고 절합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구아만 포마가 또 다른 문자 도시를 만들었고, 문자 도시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다.

권력 구조의 문화적 기능을 담당했던 문자 도시라는 개념은 식민 시대의 문자와 권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아도르노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식인 집단이 식민 권력의 강화에 치중했다는 동질적인 관점은 식민시기 지식인과 지식인 문화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지식인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들과 갈등을 인정하는 것, 나아가 또 다른 문자도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다양한 지적 실천들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V. 문자 도시 허물기

이렇게 문자 도시를 동질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문자 도시 내의 이질성과 역사성을 강조한 아도르노로 대표되는 입장 이외에도, 문자 도시가 “비 문자적인 다른 담론들에 대해 문어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 집단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하위주체 연구그룹의 대표자 격인 존 베벌리의 입장이 그것이다. 그는 메스티소나 원주민의 글쓰기, 그리고 도상언어, 시각적이고 구술적인 문화 등이 공식 언어에 의해 배제되었는데, 여기에는 문자 도시의 지식인들이 공식 언어를 통해 식민 질서와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하려는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³⁾

아도르노의 입장이 문자 도시를 동질화하고 문자 도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와 차이들을 무화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라면(Fernández Bravo 2006, 185), 존 베벌리로 대표되는 하위주체 연구적인 시각의 비판은 문자 도시 자체의 존재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즉, 하위주체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박제화하는 지식인 집단의 논리를 비판하고 전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위 주체 중심의 문화를 드러내기 위해 베벌리는 구하를 인용하여, 하위 계층이 지배 계층에 대한 적대를 문자를 파괴하는 것에서 드러내는 행위에 주목한다.

식민지 인도에서 윤전기, 권리증서, 채권 등 모든 종류의 공식적 기록을 포함

3) 여기에 덧붙여 알바로 페르난데스 브라보는 19세기 말 진행된 전문화(profesionalizació)과 맞물려 문학 영역에서 일정한 자율성이 나타났다는 앙헬 라마의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자 도시』에 대한 비판은 크게 보아 세 가지 지점에서 가능하다고 분류한다(Fernández Bravo 2006, 186-187).

하는 인쇄물의 광범위한 파괴를 야기하지 않았던 중요한 농민 반란은 거의 없었다. (중략) (농민들에게) 글은 자신의 책임임을 드러내는 상징이었다. (Renajit Guha 1983, 52; Beverley 1999, 52에서 재인용)

이런 맥락에서 보면 라틴아메리카 지식인 집단을 문자 도시로 간주하고, 이 안에 거주하는 지식인 집단이 식민 권력을 유지 확대하는 기능을 담당했다고 보는 양혜림 라마의 입장이나, 식민 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또 다른 지식인 집단, 다시 말해 또 다른 문자 도시가 존재했다는 주장하는 입장과는 다른 견해가 가능한 것이다.

베벌리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라마의 통문화화 개념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이 개념에는 지식인들이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 그룹들을 재현하는” 운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 지적 과잉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라마는 “원주민과 유럽문화 사이, 케추아와 스페인어의 경계에 위치한 위대한 페루 소설가 호세 마리아 아르케다스의 작품을 이런 의미에서 서사적 통문화화의 대표적인 예로 간주한다(Beverley 1999, 76). 그러나 이렇게 지식인 중심의 통문화화는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사유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주변화된 문화를 희생함으로써 얻어진다고 주장한다.

문학은 지역의 구술성이나 하위주체의 문화를 통합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오직 구술 문화 자체의 권위를 상대적으로 희생시킴으로써 가능하다. 통문화화에서 구술문화와 문자 문화가 명목상으로 동등하게 공존하고 있지만, (중략) 실제로는 문학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Ibid., 77)

또한 통문화화는 유럽적 근대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역사를 목적론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태도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즉 국민 국가라는 틀 내에서 다양한 요소들의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통문화화가, 결국에는 다양한 “동시대적인 실체들”을 간과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역적인 것, 오래된 것, 하위주체적인 것을 국민 국가의 통합에 대한 문제로 위치시키는 것은, (중략) 라마로 하여금 이러한 하위주체적인 요소들을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적 권리와, 권리와 주장에 대한 그들 자신만의 의미를 지닌,

동시대적인 실체들로 간주하지 못하게 한다.(Ibid., 80)

이러한 통문화화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은 “통문화화는 각각 계급들, 인종들, 성들 간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하나의 환상을 나타낸다”는 베벌리의 진술로 이어진다. 따라서 베벌리는 『문자 도시』를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좌파 기획이 봉착한 위기 속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자기비판으로 읽어 낸다(Ibid., 81-82). 즉 1970년대 성취했던 민주주의의 성과들이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에 대해 좌파 기획이 의미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의 부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획 부재를 베벌리는 지식인 중심주의가 갖는 한계에서 찾아낸다. 하위주체의 복원과 하위주체적인 관점을 통해서만 당면한 근대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벌리의 진단은 미시적인 층위의 전술적인 진단이 아니라, 사회 운동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시적인 층위의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베벌리는 뚜빱 아마루 봉기와 관련된 4개의 텍스트 중에서, 『오얀파이 *Ollantay*』에 주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구체화하고 있다.⁴⁾ 우선 베벌리는 뚜빱 아마루 봉기를 주도한 인물들이 쓴 『계보학』과 『회고록』이, 봉기의 진정한 성격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이 작품들은 식민 권력에 대해 저항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유럽적 문학 모델을 전유하여 쓴 작품으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자서전적인 인물들은 오히려 하나의 “재현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원주민뿐만 아니라 메스티소와 크리오요 세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종적인 대중들의 집단적인 행위

4) 봉기의 지도자였던 호세 가브리엘 콘도르칸끼 투팍 아마루(José Gabriel Condorcanqui Tupac Amaru)가 스페인어로 쓴 『계보학 *Genealogía*』, 그의 형제인 후안 바우티스타 뚜빱 아마루(Juan Bautista Tupac Amaru)가 스페인어로 쓴 『40년간의 포로기』로 알려진 『회고록 *Memorias*』, 스페인 황금세기 극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케추아어로 쓴 『오얀파이』, 호안 에스피노사 메드라노(Juan de Espinosa Medrano)의 『루이스 데 콩고라를 위한 변호 *Apologético en favor de don Luis de Góngora*』가 그것들이다.

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Beberly 1999, 86).

우리가 오직 스페인어로 된 문학 기록만을 본다면, 봉기의 초점은 도시와 크리오요 주민들에 제한 될 것이고, 반란 계획은 물질적 사건에만 집중되어 드러난다. 이것은 점점 더 많이 부과되는 세금과 상업적 제한으로 인해 페루인들을 더욱 곤궁하게 만든 부르봉 왕가의 경제 개혁을 완화시키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Ibid., 87)

또한 『변호』는 포르투갈의 인문학자인 마누엘 드 파리아 드 소우사가 공교를 비판한 데 대한 반비판으로 쓰인 책으로, 미학에서 중심부와 자신들을 구별하고자 했던 당시 등장하는 크리오요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다고 적고 있다(Ibid., 93). 이런 맥락에서 베벌리는 『오얀파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Ibid., 88-89).⁵⁾ 베벌리는 “민족적 알레고리”라는 제임슨의 용어를 빌어, 오얀파이의 좌절된 사랑과 잉카에 대한 봉기를 구체제의 지배적인 권력 구조에 대한 신흥 크리오요-메스티소의 계층의 불만을 상징화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연극은 케추아어로 쓰였기 때문에 크리오요-메스티소 계층이 볼 수 없었고, 따라서 이들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다른 원주민 집단을 폭력적으로 병합했던 구 잉카제국 보다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형태의 신 잉카제국을 꿈꾸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스페인의 황금세기 연극 형식을 가져와 케추아어로 연희된 『오얀파

5) 『오얀파이』는 잉카왕 빠차꾸피의 딸 꾸시 코이요르(Cusi Coillor)와 사랑에 빠진, 나중에 잉카군의 주요한 장군 중 하나가 된 작품 제목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평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두 사람이 사랑하는 과정에서 꾸시는 임신하게 되고, 오얀파이는 잉카왕에게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한다. 잉카 왕의 자식들은 평민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빠차꾸피는 딸과 아이를 감금하고 오얀파이를 출신 지역으로 도망가도록 한다. 여기에서 오얀파이는 잉카와 쿠스코의 권위에 대항하는 반란군을 조직하여 꾸시와 아이를 되찾고자 싸우게 된다. 이 전쟁은 십년이나 지속되었고, 이 와중에 빠차꾸피가 죽고 꾸시의 형제인 아들 뚜빱 유빵끼가 왕위에 오른다. 오얀파이는 결국 패배해 체포되어 쿠스코로 이송되고, 사형선고를 받을 지도 모를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번도 본적 없는 딸 이마 수막(Yma Súmac)의 중재로 뚜빱 유빵끼는 그를 사면하게 된다. 오얀파이는 꾸시와 재회하고 뚜빱 유빵끼가 쿠스코의 자리를 비울 때 그를 대신하는 일종의 잉카의 부왕으로 임명된다.

이』는, 끄리오요-메스티소 계층의 이해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꿈꾸던 하위 계층의 열망이 투사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베벌리는 이 작품을 “아래로부터의 통문화화”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 라마의 통문화화가 지식인을 중심으로 기존의 질서를 강화하는 지적인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오얀파이』에서 보여주는 통문화화는 하위주체의 새로운 열망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 작품을 문자도시가 만드는 방식들이 아니라, (중략)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유럽과 끄리오요의 문화, 그리고 문학적, 철학적 측면들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들에 기반 한, 아래로부터의 통문화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Beverly 1999, 90)

『오얀파이』의 경우 비유럽 문화들이 서구 문학의 테크닉들을 전유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베벌리의 입장은 “뚜뻑 아마루 혁명이 성공했다면, 그때 만들어진 나라는 원주민어에 대한 스페인어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이 국가는 이중 언어적이거나, 더 나아가 다언어적일 수 있었다”라는 진술로 확장된다. 스페인어에 기반을 둔 기존 질서를 혁파하고, 케추아어를 비롯한 원주민어의 복원은 하위주체의 등장과 새로운 사회 질서의 복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베벌리는 스페인어라는 제국의 언어에 기반 한 문자도시를 허물고, ‘쓰인’ 말들이 아닌 살아있는 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것이다.

식민시기 지식인의 역할은 정복자들이 시행한 언어 정책에서 잘 드러났다. 정복자들은 피식민지 사람들에게 제국의 언어를 강제하여 정복자들의 언어를 공적 언어로 삼았고, 원주민어를 말하는 것은 저항의 신호로 간주되었고 처벌 받았다. 또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끊임없이 식민당국에 의해 부과된 이상적 단일성에서 이탈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규범으로서 공식 언어를 보호하는 기능 즉 식민권력의 지배 의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더 나아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기호와 사물의 관계가 역전되는 것처럼, 식민 당국의 문화적 전략에 의해 쓰기가 말하기에 선행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식민시기 라틴아메리카는 원주민의 일상 구어를 배제하고 정복자들의 문

어에 권위를 부여하는 전형적인 문자중심의 문화였다. 따라서 지식인들의 사명은 이 문자를 보존하고 글쓰기를 고양하는 일에 복무했고, 제국에 의해 부과되는 칙령이나 법률의 전파 통로로서 기능했다. 또한 문법책 등을 통해 공식 언어를 보다 순수한 형태로 가능한 변화되지 않는 형태로 유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글쓰기의 고양은 식민시기에 형성된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특징적인 디글로시아(diglosia)를 강화했는데, 이 현상은 독립 시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인들의 언어 수행에 있어서 두 개의 언어는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 중 하나는 이베리아 반도의 긍정적 원칙에 의해 강하게 영향 받은 공적이고 도구적 언어이고 (중략), 다른 하나는 사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들 내에서 라틴아메리카인들이 구사한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언어이다. (중략) 일상 언어가 항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했음에 반해, 공식 언어는 엄격함, 변화의 어려움, 기능에 있어 단일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44)

그러나 『오얀파이』에서는 이들 문자 도시의 파수꾼들을 넘어서, 배제되었던 디글로시아의 하위 주체적인 요소들이 전면화하는 것이다. 즉 문자 도시 밖의 언어들이 문자 도시의 도구들을 전유하여 자신들의 열망을 ‘문학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가능한 것이다. 비록 새로운 잉카의 건설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하위주체적인 언어를 통해 새로운 사회 질서 건설을 꿈꾸었다는 것은 식민 질서를 유지해 주던 문자 도시의 균열이 “아래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VI.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양행 라마가 상징화한 문자 도시는 식민시기 권력과 지식인 집단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이 당대 절대 왕정의 이데올로기가 실현된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질서화 된 도시 내에서 기능하는 지식인 집단 또한 이 도시를 적정한 선에서 건설하고 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권력을 행사했다. 즉 지식인들은 정치 엘리트들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기능들을 정확하게 수행했던 것이다. 또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자신들이 얻은 이익과 권력을 놓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권력을 문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 속에서 정당화하면서 유지했다. 라마는 문자 도시라는 개념을 통해, 지식인들이 식민 질서를 유지 강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 권력의 시녀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주인이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식민 사회의 작동을 이끌면서 권력 그룹을 적법화했던 사회적 기능은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기본적으로 라마는 지식인들의 존재 근거 자체를 권력과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사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룰레나 아도르노가 『새로운 연대기와 좋은 정부』 분석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식민지 권력에 저항하는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문자 도시라는 식민지 지식인 사회가 반드시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즉, 라마의 『문자 도시』가 당대 문자도시를 지나치게 동질적으로 사유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고, 라마의 문자 도시와 다른 또 다른 문자 도시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존 베벌리의 『오얀파이』 분석은 식민시기 문자 도시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질서를 꿈꾸는 집단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비록 좌절된 열망이었지만, 스페인어라는 공식 언어, 식민 지배가 주는 공식적인 역사 이외에 다른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이야기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하위주체 그룹으로 이론화되는 이들이 존재는 문자 도시 밖에서 문자 도시를 균열하는 것이 가능하고, 새로운 질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라마의 식민 도시와 지식인에 대한 이론화는 비평사적으로 갖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라마의 유보적인 언급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식민시기 지식인상을 동질화하지 않고 보다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성사와 사회 운동에서 지식인들이 보여주는 실천적인 역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송상기(2008), 「펠리페 구아만 포마 데 아얄라가 『새로운 연대기와 좋은 정부』를 통해 제안하는 스페인 연방제 속에 담긴 안데스 세계관의 투사」, *라틴아메리카연구*, 21(1), pp. 161-187.
- 이성훈(2001), 「중남미의 도시와 지식인: 앙헬 라마의 *La ciudad letrada* 분석」, *서어서문연구*, 20, pp. 393-404.
- Adorno, Rolena(1987), “La ciudad letrada y los discursos coloniales,” *Hispanamérica*, Año 16, N. 48, pp.3-24.
- Beverly, John(1993), *Against Literature*, Minneapolis/London: Univ. of Minnesota Press.
- _____(1999), *Subalternity and representation: argument an cultural theory*, Durham/London: Duke Univ. Press.
- Burns, Kathryn(2005), “Dentro de la ciudad letrada: la producción de la escritura pública en el Perú colonial,” *Historica*, xxix. 1, pp. 43-68.
- Castro-Gómez, Santiago y Mendieta, Eduardo(co)(1998), *Teorías sin disciplina, latinoamericanismo, poscolonialidad y globalización en debate*, México: Univ. of San Francisco.
- Colombi, Beatriz(2006), “La gesta del letrado(sobre Ángel Rama y La ciudad letrada),” *Orbis Tertius: revista de teoría y crítica literaria*, N. 12. http://www.memoria.fahce.unlp.edu.ar/art_revistas/pr.203/pr.203.pdf
- Cora, Gorman Malone(2010), “Epistemology and The Lettered City: Ángel Rama, Michel Foucault and Ibn Khaldun,” *Mester*, 39, pp. 131-148.
- De la Campa, Román(1999), *Latinamericanism*, Minneapolis/ London, Univ . of Minnesota Press.
- Duenas, Alcira(2010), *Indians and Mestizos in the “Lettered City”: Reshaping Justice, Social Hierarchy, and Political Cuture in Colonial Peru*, Univ. Press of Colorado.
- Fernández Bravo, Álvaro(2006), “La provocación de La ciudad letrada,” *Prismas: Revista de historia intelectual*, N. 10, pp. 185-189.
- Garramuño, Florencia(2006), “El árbol y el bosque: La ciudad letrada y su concepto de poder,” *Prismas: Revista de historia intelectual*, n. 10, pp. 195-197.
- Genovese, María Cristina(2011), “Especializar la relación entre la letra y el poder: Ángel Rama y La ciudad letrada,” *Intersticios de la política y la cultura latinoamericana: los movimientos sociales*, Universidad Nacional de Córdoba, pp. 188-195.

- Larsen, Neil(1995), *Reading north by south: on latin american literature, culture, and politics*, Minneapolis/London: Univ. of Minnesot a Press.
- Lecuña, Vicente(1996), “Ciudad letrada y ciudad electrónica: el intelectual latinoamericano en los tiempos del neoliberalismo,” Tesis doctoral, Univ. of Pittsburgh.
- Leinhard, Martín(1992), *La voz y su huella : escritura y conflicto etnico-cultural en América Latina 1492-1988*, Lima: Editorial Horizonte.
- Mazzoti, José y U. Juan Zevallos Aguilar(co)(1996), *A sedios a la heterogeneidad cultural: libro de homenaje a Antonio Cornejo Polar*, Philadelphia: Asociación Internacional de peruanistas.
- Moraña, Mabel(ed.)(1997), *Ángel Rama y los estudios latinoamericanos*, Pitsburgh: Instituto Internacional de Literatura Iberoamericana, Univ. of Pittsburgh.
- Ortiz, Marbel(1993), “La modernidad conflictiva: Ángel Rama y el estudio de la literatura latinoamericana,” Tesis doctoral, Univ. of New York at Stony Brook.
- Rama, Ángel(1982), *Transculturación narrativa en América Latina*, México: Siglo xxi editores.
- _____(1984), *La ciudad letrada*, Hanover: Ediciones del Norte.

이 성 훈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anselmus@snu.ac.kr

논문투고일: 2013년 8월 2일

심사완료일: 2013년 8월 16일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19일

A Study of the Images of Intellectuals during the Spanish Colonial Period in Ángel Rama's *Lettered City*

Seong Hun Lee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Seong Hun (2013), A Study of the Images of Intellectuals during the Spanish Colonial Period in Ángel Rama's *Lettered C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examining the images of intellectuals in Ángel Rama's texts, with a focus on the colonial period. Through the concept of the “lettered city (ciudad letrada)”, he shows that intellectuals greatly contributed to the maintenance and fortification of the colonial order and were not only handmaidens to but also masters of power. Rama writes that their social function of leading the operation of colonial society and legalizing power groups has continued even after independence. Basically, he considers the raison d'être of intellectuals itself in terms of coexistence with power. However, as Rolena Adorno shows in an analysis of *El primer nueva crónica y buen gobierno (The First New Chronicle and Good Government)*, the fact that other voices resisting colonial power existed demonstrates the reality that the colonial intellectual community, or the “lettered city”, was not necessarily homogenous.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critique Rama's *Lettered city* as having viewed contemporary “lettered city” as overly homogenous and to confirm the existence of “lettered cities” other than that of the writer. In the end, Rama's theorization of the ciudad letrada and intellectuals can be said to have certain limitations notwithstanding its significance in critical history. In this respect, his reserved allusions to the construction of cities in Latin America will serve a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In addition, an attitude that seeks to understand the images of intellectuals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a more complex manner instead of homogenizing them will be of considerable help to understanding the practical roles demonstrated by intellectuals in subsequent intellectual history and social movements in Latin America.

Key words Ángel Rama, lettered city, Colonial period, intellectual